

# 주요코하마 총영사관은 답하라



김승호의  
시선

일본에 살고 있는 옛 친구 얘기를 좀 해 야겠다.

개인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지 모르 겠지만 전혀 사스럽지 않은 이야기다.

친구는 일본에서 25년째 살고 있다. 16 년 전에 결혼했다. 친구는 중국 국적의 아내를 일본에서 만나 두 아이를 낳고 행복 하게 살고 있다.

그는 아내와 함께 한국에 계신 부모님 을 뵙기위해 지난달 말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다. 친구 부부가 한국을 찾는 것은 3년 5개월 만이다. 코로나19로 오가는 것이 여 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친구의 아내가 갖고 있던 한국 비자가 코로나 기간 동안 영사 업무가 원활치 않아 만료됐다.

친구는 아내의 비자를 받기위해 사는 곳과 가까운 주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 관에 갔다. 한국에 가기까지 2주 정도 여유 가 있었다.

영사관 직원은 대뜸 예약 여부를 물었 다. 친구는 예약을 해야하는지도 몰랐다. 영사관 직원의 말을 듣고 부랴부랴 영사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예약이 되질 않았 다. 그래서 다시 문자 직원 왈 4월에 한국 으로 갈 자리(비자)가 꽂혔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비행기표도 끊어냈고 2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친구는 황당했다.

영사관측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재차 물었다.

영사관 직원은 티오(TO)가 다시 생키 는 5월 일정이나 맞춰 예약을 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자칫 예약한 비행기도 취소해야 할 판이었다.

“예약 서류를 보니 가관이였다. 은행잔 고 증명서까지 요구했다. 국민의 배우자가 남편의 나라에 가는데 비자를 받으려면 잔 고까지 증명해야하는 게 납득이 가질 않았 다.” 친구가 어이없어 했다.

부모가 사망하는 등 긴급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규정대로 절차를 밟아야한다 는 영사관측의 답변에 친구는 더욱 화가 났다. 마치 ‘긴급한 상황’까지 만들어야 이

를 참작해 배려해 줄 수도 있다는 말로 들 렸기 때문이다.

한참 실랑이를 하던 와중에 영사관 직원 은 그렇게 급하면 여행사를 통하라고 친구 에게 선심쓰듯 안내했다. 영사관은 안되고 여행사는 된다는 말에 또 울화가 치밀었다.

울며 겨자먹기로 친구는 여행사에 문의 했다. 시간적으로 (비자를 받는 것이)부족 하다면 여행사측은 급행 비자는 가능하 다고 귀뜸했다. 그러면서 가격은 3만4000엔, 한국 돈으로 30만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친 구에게 제시했다. 그것도 비싸면 절차대로 비자를 발급받아야한다고 하면서다.

“일본인은 비자 없이도 한국을 오갈 수 있다. 내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내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 때문 에 이런 차별을 받는 것에 정말 화가 난다. 국민의 배우자가 단순히 외국인이나, 그 와중에 재외국민이 비싼 돈 들여 현지 여 행사의 배를 불러주려고 하는 것은 또 무 슨 경우냐. 이게 나라냐.”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친구의 목소리가 격앙됐다.

결국 친구 부부의 4월 한국행은 성사되 지 못했다. 그제 나라다.

/bada@metroseoul.co.kr

# 앗, ‘GPT’라는 단어 사용 못하나요?



김수정의  
최 빛 나  
(산업부)

오픈AI가 ‘GPT’라는 단어를 기업들과 공유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 과거 GPT를 출범할 당시 인류에 유익한 방향으로 개발 할 수 있게 기술을 공개를 하겠다는 다짐과 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에 코GPT, 서치GPT 등 막바지 개발단계에 접어든 국내외 기 업들은 오픈AI의 이 같은 도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오픈AI는 자사 공식 홈 페이지를 통해 “GPT를 활용한 제품을 개 발해도 GPT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것”이 라는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까웠다. GPT에 타사의 무임 승차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 여기에 상표권에 대한 권리 보장과 브 랜드 가치훼손을 미리 방어하겠다는 포석

으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오픈 AI가 선보인 챗 GPT는 네 이밍을 통해 첫 효과를 충분히 입증했다. 출시 이후 폭발적인 관심으로 AI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하게 굳혔다. 이런 오픈AI가 왜 이제서야 GPT 사용에 제동을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아직 ‘GPT’라는 단어의 상표 등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데 이터GPT, 메디컬GPT 등 글로벌 기업들 이 GPT 관련 상표등록 시도에 속도를 내 기 시작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사실 오픈 AI는 지난해 12월 GPT에 대한 상표를 출 원했다. 하지만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수 수료 미납 ▲서류 미제출 등으로 상표 출 원을 거부 당한바 있다.

상표 출원은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6 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서류심사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과정도 복잡하다. 그 사이 타기업이 GPT라는 단어를 먼저 상표 등록을 허가받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 든 과정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에 오픈 AI는 올해 상표출원에 더욱 적극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GPT라는 단어를 놓고 오픈 AI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엇갈린 입장이나온다.

GPT 중 T에 해당하는 ‘Transformer’ 가 고유명사일 뿐만 아니라 이미 신경망아 킷렉처라는 뜻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기 때 문에 독점으로 상표권을 얻기 힘들 것이라 는 목소리와 우수한 브랜드 성을 고려해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첫 출범 시 인류에 도움되는 방향 으로 기술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모 순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 속 국내 기업들만 난감한 상황이다. 잇불 리 서비스 명을 바꾸자니 아이덴티티를 생 각해야 하고 그대로 가자니 방향성이 모호 하다. 자칫 잘못하면 손을 못쓸 수도 있 다. 이런 상황 속 정부는 ‘법’ 국가적으로 해당 문제를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vitna@

## 오늘의 운세 5월 8일 (금 3월 19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도 강이 있다. 48년생 증여를 해줬으니 축복이자 복덕 이다. 60년생 자기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72년생 나도 싫으면 남도 싫은 것이 사랑 의 감정이다. 84년생 이제부터는 지난 일을 근심하지 마라.
- 소** 37년생 닭띠와 언쟁하지 않도록. 49년생 바다가 길을 막아 오도 가지도 못한다. 61년 생 부모가 물려 준데도 기업을 운영하려면 공부해야 한다. 73년생 조직에서 목소리 크게 내지 마라. 85년생 피곤한 일이 행복으로 여겨진다.
- 호랑이** 38년생 해운업이나 해산물 관련 일은 길신 하다. 50년생 큰 부자는 절대로 인색하지 않다. 62년생 재물로 남에게 관대하면 돈이 내게로 오면서 존경을 받는다. 74년생 연 장근무로 효과를. 86년생 결정 장애처럼 종일 유유부단.
- 토끼** 39년생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오복의 하나. 51년생 지인에게 돈 부탁해야 소용없다. 63년생 퇴근 후 일찍 귀가. 75년생 형제끼리 누가 잘 하나를 따지면 무엇을 하겠는 가. 87년생 골 같은 아내가 여우같은 마누라보다 낫다.
- 염** 40년생 친구인 시어머니들이 만나면 껄뻐한 며느리만 있다. 52년생 목연 기도를 해 보라 일이 해결된다. 64년생 상술도 능력이다. 76년생 말리는 도로이니 아침 일찍 나 서라. 88년생 현재에 충실한 것이 미래를 온전히 하는 요소.
- 뱀** 41년생 차매 증상이 인품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53년생 재운이 상승이니 주 식 투자도 운수대길이다. 65년생 지지부진한 답답함만 있다. 77년생 소개팅이 있는 날. 89년생 평소 예견손해 조직에서는 조직의 뜻을 따르자.
- 말** 42년생 재테크로 부의 불평등을 스스로 벗어났다. 54년생 말의 흉수시절 조심은 하 자. 66년생 결혼이 필수시대였으나 혼자 가는 길. 78년생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 90년생 선택과 결정은 적시성도 중요하니 때를 놓치지 않도록.
- 양** 43년생 상대에게 위함을 받으려는 태도는 미움을 산다. 55년생 재물요구가 많은 자 녀들로 골치가 아플 것. 67년생 동료가 이기적이긴 하나 영연력은 우수. 79년생 말은 일을 매듭짓는다. 91년생 어디서나 인간 세상의 원칙은 있는 법.
- 원숭이** 44년생 불화를 겪지 않으려면 자체를 성찰하라. 56년생 미모가 있으나 인덕이 박하 다. 68년생 너무 앞서면 꽃잎이 피기도 전에 스러진다. 80년생 적법한 부동산을 사도 록. 92년생 회사의 지시를 좇아 일하는데 불만이 왜 많은 것인지.
- 닭** 45년생 주말 낚시는 귀신들린듯 피곤을 가져온다. 57년생 작은 것에도 긍정적이나 재물과 연관된다. 69년생 다른 이성에게 눈 돌리지 않도록. 81년생 능력이 남보다 열 등해도 고민하지 말자. 93년생 남에게는 불공정하지 말라면서 자신은.
- 개** 46년생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며 대화. 58년생 임금귀는 당나귀 귀이니 남 얘기로 삼지 말도록. 70년생 의사소통으로 일을 해결해야. 82년생 경청하면 일이 해결. 94년생 화를 자제하고 밥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가져보자.
- 돼지** 47년생 미워하는 사람을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듯. 59년생 늙지는 않았으나 힘들다. 71년생 싸우다가 주먹질이 오가지 않도록. 83년생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찾는 것은 비현실. 95년생 구슬이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서의 판단이다.



## 김상회의 4 검은 황금

검은 황금이라고 불린 작물이 있었다. 금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았던 후추다. 지금은 너무 흔하고 값이 싸지만 한때는 유럽 각국이 국운을 걸고 쟁탈전을 벌인 작물이었다. 유럽에 후추가 처음 전해진 것은 기원전 4세 기였다. 인도남부가 원산지인 후추는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 유럽에 알 려졌다. 당시 유럽에는 별다른 향신료가 없어 육류를 소금에 절여서 먹었 는데 색다른 맛과 향을 지닌 후추는 혁명 같은 새로운 맛을 선사했다.

육류를 오래 보관하는 데도 효과적이어서 시대를 뒤흔들 만큼 인기 를 끌었다. 문제는 유럽에서 후추 수요가 급증하며 가격이 상승도 못 할 정도로 뛰었다. 후추 수입에 성공하며 무려 1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 베네치아는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면서 후추공급을 독점하다시피 했고 후추라는 거대한 시장을 만들었으며 엄청난 돈을 끌어 담았다. 이런 후추 를 각국이 그냥 돌리 없었다. 대서양에 접해 있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인도로 가는 항로 개척에 나섰다. 검은 황금을 찾아 나선 포르투갈은 아 프리카 곳곳을 식민지로 만들었고 스페인은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을 발 견했다. 결국 후추가 인류 역사까지 바꾸어 놓았다. 후추로 시작된 대항 해 시대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부를 얻었고 유럽의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후 추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 부를 향한 열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코로나 이후 더 뜨거워진 재테크 열풍은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고 있다. 마치 후추를 찾아 나선 유럽 각국처럼 부를 향해 국가도 개 인도 다르지 않다. 아마 백 년 또는 천 년이 지나도 다르지 않을 것이 다. 부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욕망이라는 걸 세계역사 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벽 5시**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 부등호 �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6 | 10,000원

3	9			1		2	7
2	4		5			3	1
8						7	
							9
	5						
4	2			7		9	3
1	8		3			5	6

8				1		5	
	9	2	4		6		
9					1	8	
	2				3		
7	1						5
		7		1	6	8	
					3		
		9	5				

고난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정답**

9	7	6	2	8	1	8	1
8	6	1	2	9	8	9	2
2	8	2	9	7	1	6	8
6	7	8	1	9	2	2	9
8	1	2	8	9	2	7	9
9	2	9	7	6	2	8	1
7	9	8	2	8	6	1	2
1	8	6	9	2	9	8	7
2	2	9	1	8	7	9	6

8	7	2	8	2	9	9	6	1
9	1	9	8	6	2	8	7	2
2	6	8	9	1	7	2	8	9
9	2	6	7	8	1	2	9	
2	9	8	6	9	1	2	8	7
7	8	1	2	2	9	8	9	6
8	2	9	9	7	2	6	1	8
1	8	7	2	9	6	9	2	8
6	9	2	1	8	8	7	9	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